

## SI 사태 조기진화 농가피해 최소화 필요

# 가금업계도 AI 발생방지에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야...



본지 김한웅 부장

최근 멕시코시티에서 시작된 Swine Influenza(SI)로 인해 나라 안팎이 온통 떠들썩하다.

4월 30일 오전 1시 30분 현재 SI로 인해 벌써 160여명이 사망하고 감염 의심 환자수는 그 20배인 3,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SI로 인한 사망자가 비록 23개월의 영아이기 는 하지만 멕시코에 이어 미국에서도 나타났으며 4월 29일 오전 8시 현재 우리나라도 1명의 추정환자에 이어 6명의 의심환자가 보고됐다고 하니 SI로 인한 파괴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

각종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 보면 우리 업계로서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

특히 돼지와 닭의 관계에서인지 몰라도 SI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선 해설이나 인터뷰를 보고 듣고 있노라면 곧잘 Avian Influenza와 비교 설명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언론에서는 사스와 AI, 그리고 SI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혼자 반문해보는 것이지만 AI는 철새가 옮기고 다니고 SI는 사람이 옮기고 다닌다는 것인지 뭔지 참으로 이상해지는 기분을 못내 떨쳐낼 수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AI가 됐던지 SI가 됐던지 간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가금사육농가, 양돈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나아가서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얼마나 세상을 어렵게 살면 동물들이나 걸리는 병이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이 되겠느냐며 한탄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던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처한 현실임에는 분명하며 이 산업

## 우리 가금업계도 마지막까지 AI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 상황이 엉뚱한 곳으로 전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겠다.

에 종사하는 한 항상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임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필요 이상의 상황 확대로 농가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행위만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AI로 인해 가금업계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아왔는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가금질병인 AI의 발생은 단순히 가축의 도살 처분 차원을 넘어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감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AI가 처음 발생했던 2003년과 비교할 때 현재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일단 AI가 발생하면 20% 이상의 닭고기 소비감소로 이어진다. 이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다가 AI가 다시 발생하면 또다시 10% 곤두박질치며 닭고기 산업 자체를 멎들게 한다.

AI는 가금질병이며 닭고기, 오리고기 등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지금도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털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AI 바로알기' 등 AI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개로 상당수의 소비자들 AI와 닭고기를 먹는 것과는 별다른 상

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일단 AI가 발생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 닭고기 소비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닭고기를 안 먹어도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데 굳이 찹찹하게 닭고기를 먹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언론보도를 자제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다.

다행히도 지난 2008~2009년 동절기에는 AI의 발생 없이 무사히 넘어갔다.

난데없이 Swine Influenza(SI)가 발생했고 SI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에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어찌됐던 중요한 것은 SI의 불뚱이 우리 육계 및 계육업계로 옮겨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양돈업계에서는 사건의 조기 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인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만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가금업계도 마지막까지 AI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 상황이 엉뚱한 곳으로 전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겠다. <img alt="logo" data-bbox="745 895 775 915"/>